

중경, 신에너지차산업 규모 8 천억원 돌파

— ‘지능형 네트워크 자동차 도시’로 한걸음 더



지난해 9월 18일, 중경시 유복구의 장안자동차 디지털 스마트 공장 조립작업장. / 신화사

지난해 중경시의 자동차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스마트화 역량을 입증했다. 2025년 중경의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278만 8,000 대로 전국 도시중 1위를 차지했다. 그중 신에너지차는 36%의 증가를 기록하며 129만 6,000 대의 연간 생산량을 달성했다. 산업 클러스터 규모는 8,000 억원을 돌파했다. 중경이 혁신을 중심으로 품질·효율을 높이고 산업 클러스터화를 촉진하며 ‘신에너지 지능형 네트워크 자동차(ICV)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장안자동차 스마트 공장에서는 신형 순수 전기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모델이 출하되고 있다. 연구개발

(R&D)·생산·검사 전 과정이 스마트화 방식으로 관리 및 제어되는 이곳 공장은 기존 공장보다 50% 이상 높은 생산 효율을 자랑한다.

장안은 시스템·기술·제품을 전면 전환 및 업그레이드했다. 더불어 신에너지차의 3전(三电, 전기배터리·전기모터·전력제어장치) 분야에서 400여건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다수의 신에너지차 모델을 출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장안의 3천만번째 중국 브랜드 자동차가 중경에서 출하됐다. 주화락 장안자동차 회장은 오는 2030년까지 완성차 500만대 생산·판매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중 신에너지차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경시통계국 공업처 책임자는 중경이 공업 분야의 신질생산력을 꾸준히 육성해온 가운데 특히 신에너지 ICV 산업 클러스터가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3.4% 증가하며 시 전체의 규모 이상(년매출 2,000만원 이상) 공업 성장에 60.9%를 기여했다.

이 밖에 장안자동차는 지난해 12월 중국 최초로 L3(조건부 자율주행)급 자율주행 전용 정식 번호판을 획득했다.

진퇴 장안테크 테스트·검증및데이터응용부 책임자는 해당 독자개발 시

스템과 관련해 중경의 복잡한 산악 도로에서 500만키로미터 이상의 주행 테스트를 수행했으며 전 과정에서 ‘무사고’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중경 량장신구에는 배터리 제조업체 녜덕시대(宁德时代, CATL)의 ‘공장내 공장’이 자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공급사슬을 ‘분단위’로 배치해 물류 주기와 원가를 최소화했다.

원자재 가공 및 핵심 부품 제조에서 완성차 조립 그리고 물류 수출 및 A/S까지... 중경의 협력적·효율적인 전체 산업사슬은 더욱더 촘촘해지는 추세다.

특히 량장신구, 중경 서부지역 등 핵심산업 집적지는 현지 협력 기업들을 밀집시켜 성장시키고 있다. 중경시경제정보화위원회 관계자는 “1시간 공급사슬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완성차 기업 부품의 70% 이상이 현지와 주변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경은 배터리를 중심으로 CATL, 봉소에너지테크놀로지 등 선도 기업을 유치했으며 장안자동차 등 기업이 현지 대학과 함께 선진 배터리 기술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중경은 624개 신에너지 ICV 부품 기업, 220개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업, 27개 차량 규격 칩 기업을 육성 및 유치해 ‘19개 완성차 기업+1,200여개 규모 이상 부품 기업’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자동차 부품의 현지 공급률은 4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왕지걸 중경시경제정보화위원회 주임은 향후 5년간 완성차·부품·애프터마켓의 재편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세계적인 신에너지 ICV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신화넷

2월 제조업 PMI, 음력설 영향으로 소폭 하락



지난 1월 27일, 하남성 수현 과학혁신산업단지의 한 전자회사 생산라인에서 와이어링 하나스를 제작중인 직원. / 신화사

2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소폭 하락했다.

4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월 제조업 PMI는 전월 대비 0.3% 감소한 49.6%로 집계됐다. 음력설 연휴가 2월 중하순에 집중되면서 기업 생산과 비즈니스 활동이 일시적으로 위축됨에 따라 제조업 전반의 시장 활동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생산지수와 신규 주문지수는 각각 49.6%와 48.6%로 전월보다 각각 1포인트, 0.6%포인트씩 하락했다. 이는 제조업 생산과 시장 수요 모두 소폭 둔화됐음을 의미한다.

업종별로 보면 농부산물·식품가공업, 컴퓨터·통신·전자설비 제조업 등의 생산지수와 신규 주문지수는 50% 이상으로 확장 국면을 유지했다. 반면 섬유·의류·자동차 업

종의 생산지수와 신규 주문지수는 모두 50% 이하로 경기가 위축됐다.

기업별로 보면 대기업의 2월 PMI는 51.5%로 1월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반해 연휴 영향을 크게 받은 중소기업의 PMI는 각각 47.5%와 44.8%로 1.2%포인트, 2.6%포인트씩 하락했다.

2월 과학기술 제조업의 PMI는 51.5%로 전체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면서 강력한 성장 태세를 이어갔다.

소비재산업의 PMI는 0.5%포인트 오른 48.8%로 경영 환경이 개선됐다. 반면 장비 제조업과 에너지 소비 산업의 PMI는 각각 0.3%포인트, 0.1%포인트 하락한 49.8%와 47.8%를 기록했다.

한편 2월 비제조업부문의 PMI는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한 49.5%로 집계됐다. / 신화넷

복주 연휴 끝... 생산 재개에 박차

복건성 복주(福州)의 여러 산업단지와 주요 제조 기업내 스마트 생산라인이 연휴를 마치고 풀가동을 시작했다.

동남자동차공업회사 작업장에서는 로봇팔이 유연하게 움직이고 스마트 물류 차량이 분주하게 오가며 새 자동차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지난해 동남의 자동차 생산량은 30만대에 달하며 좋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방직산업의 중심지인 장락(长乐)구는 최근 수년간 산업·공급망 분산과 수익 축소 등 어려움에 직면하자 전통 기업들에 ‘디지털·스마트화 전환’을 추진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5G 스마트 공장이 하나둘씩 출현하기 시작했다.

장락구 보포사(辅布司) 산업단지의 방직작업장에서는 인공지능 스마트 검측 설비의 고화질 카메라가 레이스 장식 제품을 촬영하고 영상은 백엔드(后台) 시스템으로 전송돼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검사한다. 제어판에는 품질의 히트맵(热力图)이 실시간으로 생성돼 제품에 구멍이나 올 곰김, 바늘 위치 이상 등이 감지되면 장비가 자동으로 멈춘다.

복정시에 위치한 강음항성경제기술개발구에는 99개의 규모 이상(년



복건성 복주시 장락구 보포사산업단지내 방직작업장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검측 설비가 가동중이다. / 신화사

매출 2,000만원 이상) 공업기업이 모여있다. 화공 신소재를 핵심산업으로 한 이곳의 화공산업 생산액은 지난해 1,000억 원을 넘어섰다.

강음항성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 경제발전처 책임자 오세웅은 “화공산업 특성상 음력설 연휴 기간 산업단지내 기업들이 생산을 줄였지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주시공업정보화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복주시 전체 2,800개 규모 이상 공업기업중 94.6%가 이미 업무를 재개했다. 일부 기업의 계절성 휴업이나 정기 점검을 제외하면 업무 재개률이 100%에 이른다. / 신화넷

광서 흡주 화물 운송 작업으로 분주

광서 북부만항구 흡주부두에서는 부두 크레인, 갠트리 크레인 등 자동화 장비가 가동되고 차량들이 오가면서 화물 운송 작업으로 분주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사진은 컨테이너가 가득한 흡주부두(드론사진). / 신화넷



图说
我们的
价值观

勤善为本 吉福满门

富强民主文明和谐
自由平等公正法治
爱国敬业诚信友善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

河南南阳 张新亮作